APEC의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APEC Social Safety Net Capacity Building Network

禹 在 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팀
국제프로젝트 코디네이터

1. 서 론

1997년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APEC역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의 연관성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경제위기가 재발생 했을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APEC역내의 공동체적 대처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따라서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PEC 회원경제들은 사회안전망에 관한 최초의 공동안을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이어 APEC내에서 지속적인 제안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APEC 회원경제들은 이러한 제안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2000년에는 『APEC 사회안전망 특별작업반』 (The Aid Hoc Task Force on Strengthening APEC Social Safety Net)을 설립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동 특별작업반의 세 차례에 걸친 회의가 중국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동 특별작업반 회의 및 APEC 역

내 사회안전망에 관한 사전 연구 결과에 따라, APEC 회원경제들은 2001년 8월 제3차 특별작업반 회의에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APEC Social Safety Net Capacity Building Network: APEC SSN CBN)구축 및 『APEC 사회안전망 국제회의』(APEC Social Safety Net International Meeting)를 개최하자는 안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관련 권고안은 2001년 APEC 제3차 고위급관료회의(Senior Officials's Meeting III)와 각료급회의(Annual Ministers' Meeting)에 제출 및 승인된 데 이어 2001년 제9차 APEC 정상회의에서도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APEC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있기까지 우리나라는 태국과 공동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므로 2001년 제9차 APEC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가 동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논의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2.『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축현황

2001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두 가지 사안 중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동 네트워크의 기본방향 및 활동사항을 계획하여 이에 관한 제안서를 2002년 APEC 제1차 고위급관료회의(Senior Officials's.Meeting I)에 제출하고 승인을 획득하였다.

1)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축목적 및 활동방향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APEC 회원경제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APEC 경제장관회의와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uman Resources Development Working Group: HRDWG) 권고안의 산출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PEC 회원경제는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이외 국제기구 및 석학들과 정보·인력 교류 및 관련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동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동방향을 갖고 있다.

(1) APEC 회원경제내 정보교환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는 APEC 회원경제들의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에 관련된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한다. 동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질 정보교환은 6가지 사항, 즉, (1) 위기전 사회안전망 계획과 예방대책 수립(pre-crisis social safety planning and prevention measures), (2) 정책실행 효과성의 평가능력 제고방안(capacity for evaluating effectiveness of policy action), (3)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최근 데이터의 입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collection of dis-aggregated data and access to current data), (4) 위기에 처해있는 보호대상자 조사(identifying at-risk populations), (5) 담당기관과 재정에 대한 설계능력 제고방안(designing response institutions and financing), (6) 사회안전망 시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방안(strengthe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social safety net operations)이다. 정보교환은 동 네트워크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라도, APEC 회원경제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동 네트워크의 주요과제로 포함할 수 있다.

(2) APEC역내 사회안전망 강화 경험 공유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는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관련 전문기술을 다양한 기관과 기구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동 네트워크는 정책토의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APEC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동 네트워크는 APEC내에서 역내 사회안전망에 관한 현안 및 문제점 파악, 그리고 대처방안 마련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는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관련 전문기술을 다양한 기관과 기구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할 것이다.

2)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조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틀을 중심으로 구축될 것이다. 첫째, 동 네트워크는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부처,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 연수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구축될 것이다. 둘째, 동 네트워크의 활동을 총괄할 기관을 Head Institution으로 지명하고, 각 APEC 회원경제내의 사회안전망 관련기관들을 Lead Institution으로 지정하여, 이들 기관이 Head Institution과 협조하여 네트워크를 조직·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동 네트워크는 APEC내 관련 조직, 특히 인적자원실무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동 네트워크의 모든 활동사항은 APEC 고위관료회의에 직접 보고될 것이며, 동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APEC 고위관료회의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다.

(1) Head Institution

동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발전시키기 위해 이를 총괄할 Head Institution이 필요함에 따라 동 사업을 주도하여 이끌어오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하기로 2001년 합의가 되었으며, 또한 2002년 제1차 고위관료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동 네트워크의 Head Institution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승인된 바 있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Head Institution으로서 Lead Institution들의 공조하에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능력배양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

(2) Lead Institution

APEC 각 회원경제들은 Head Institution과 협력하여 동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Lead Institution들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PEC 회원경제들은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현재 선정 작업중에 있다. Lead Institution들은 동 네트워크내의 모든 활동 사항에 참여함과 동시에 특

정 활동에서는 지도권을 취하기도 하며, 다른 Lead Institution들과 함께 협조하여 동 네트워크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따라서 동 네트워크의 활동들은 Lead Institution들의 참여에 의해 개시·지속될 것이며, Head Institution은 매년 동 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제안을 Lead Institution에 배포하여 이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승인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를 통해 Head Institution과 Lead Institution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APEC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동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3) 최근 현황

위의 사항을 골자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현재 Head Institution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하에 첫발을 디디고 있다. 우선 동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Head Institution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동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Head Institution의 활동뿐만 아니라, APEC 회원경제의 Lead Institution들의 동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우리나라는 각 회원경제들이 Lead Institution을 속히 선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를 2001년도에 수행한 결과, *APEC's Measures on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 in the Asia-Pacific Region*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구축될 것이며, APEC내 관련 조직, 특히 인적자원실무 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3. 『APEC 사회안전망 국제회의』 공동개최

2001년 APEC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태국은 공동으로 『APEC 사회안전망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동 국제회의는 우리나라에서 2002년 7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며, 동 국제회의는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1) 국제회의 목적 및 의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동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활동이 개시되어도 물리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논의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토의할 국제회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태국은 공동으로 『APEC 사회안전망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APEC 회원경제의 사회안전망 관련정책 입안자, 전문가,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함께 모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 국제회의에서는 APEC 회원경제의 현 사회안전망의 상태와 문제점 및 한계점,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실태를 논의할 것이다. 또한 APEC 역내 회원경제 및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해 실시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를 위한 지침 및 추진활동에 대한 권고안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동 국제회의에 APEC 회원경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동 국제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질을 높이고자 APEC 회원경제들은 각각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보고서(Country Paper)를 작성·발표할 예정이다. 각 회원경제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각의 회원경제들이 안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현 상태와 문제점 및 한계점, 그리고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밝힐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APEC 역내 회원경제간의 사회안전망 관련 협력 사례도 공유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 및 논의를 통해 동 국제회의는 APEC 회원경제간의 사회안전망 사태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차이를 이해하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APEC 역내 나타나는 사회안전망의 질적 및 양적 차이를 좁혀나가고자 협력 방안 및 이를 위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의 활동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 국제회의 개최준비 현황

동 국제회의는 2002년 7월 25~26일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태국의 공동 주최로 개최될 것이며, 참가자는 APEC 회원경제내 사회안전망 관련부처의 고위급관료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동 국제회의는 우리나라와 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지만, 모든 APEC 회원경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조직하였다. 현재 '운영위원회'에는 공동 주최국인 우리나라와 태국 외에 미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 위원회'는 동 국제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02년 6월 27일 태국에서 국제회의 준비 전반사항에 걸쳐 사전회의를 갖는 등 국제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동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활동이 개시되어도 물리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논의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PEC역내 사회안전망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토의할 국제회의가 필요하다.

4.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의 발전방향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발전 방향은 동 네트워크가 다국적 조직으로서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Head Institution과 APEC 회원경제들의 Lead Institution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한 대화채널로서 동 네트워크의 웹사이트가 구축·활용되어 이를 매개체로 APEC 역내 동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가 공고히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2년 7월 서울에서 있을 『APEC 사회안전망 국제회의』를 통해서 APEC 회원경제는 동 네트워크가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회원경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동 네트워크는 APEC 회원경제들의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APEC 역내의 사회안전망 질적 차이를 좁혀나감으로써, APEC 회원경제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을 또 한번 겪게 될 지라도 이번에는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와 같이 APEC 회원경제가 역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축 및 『APEC 사회안전망 국제회의』 개최에 동의하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태국과 함께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APEC은 경제공동협력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새로운 협력사안을 갖도록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 구축과 『APEC 사회안전망 국제회의』 개최는 동 사업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하여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를 세계화하고, APEC 회원경제들이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 사업은 APEC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